

# 날 수 없는 조종사... 자격유지 난항

90일내 동일기종 이착륙 경험 필요  
대한항공만 전 기종 시뮬레이터 보유  
정부의 별도 지원 조치도 없어

항공업계가 운수권의 회수 유예 등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항공기 조종사들의 자격을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종료할 예정이었던 항공사 대상 운수권(비행할 수 있는 권리) 회수 유예 조치를 연장할 방침이다. 운수권의 회수를 6개월 또는 1년 유예하는 것이다. 국가 간에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인 운수권은 규정상 매년 20주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에 회수된다.

하지만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으로 운수권 및 슬롯(항공기 출·도착 시간)의 회수를 1년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 달까지 해당 유예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코로나 여파에 따른 항공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해 이차림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국토부는 항공사에 각종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당초 지난해 12월까지였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착륙료 10~20%, 정류료 전액을 감면받고 있다. 해당 조치로 국토부는 지상조업사 대상 계류장사용료 전액 감면을 포함해 약 457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



대한항공 항공기.

을 것이라고 봤다.

문제는 항공기 조종사의 자격을 유지하는 데 있다. 조종사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90일 이내 동일 기종 항공기 또는 시뮬레이터로 3회 이착륙 경험이 필요하다. 또한 정기적인 기량심사 통과 및 최근 3개월 이내 항공기 승무 경험도 요구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해 국제선의 운항 편수가 대폭 줄면서 이 같은 자격 조건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별도 지원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은 그나마 전 기종의 시뮬레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조종사들의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비운항으로 실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어도 시뮬레이터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시뮬레이터를 총 11대 보유 중이다. 이는 보유 중인 항공기 기종별 1대 이상의 시뮬레이터를 갖춘 규모로 인천 영종도 소재 훈련센터에서 24시간 훈련 가능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운항편 감소에 따라 실제 항공기 운항으로 심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국토부 사전 승인을 통해 시뮬레이터 훈련으로 이를 대체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항공과 달리 시뮬레이터가 없는 항공사들은 일부 자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시뮬레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A380 기종 항공기의 시뮬레이터는 없는 상황이다. 당초 코로나 이전 아시아나는 방콕 타이항공의 A380 시뮬레이터를 대여해 교육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현재 해당 기종 운항에 있어 최소 인력만 유지하고, 나머지 인력은 자격 유지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A380 조종사의 자격 유지 관련 “코로나 상황이 해결되고, 국제선 운항이 원활해지면 조종사분들의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삼성전자, 데이터센터 전용 고성능 SSD 양산

6세대 V낸드 기반, OCP규격 만족  
연속 쓰기 속도 3000MB/s

삼성전자가 데이터센터 전용 고성능 SSD를 만든다.

삼성전자는 오픈 컴퓨트 프로젝트(OCP) 규격을 만족하는 SSD PM9A3 E1.S를 양산한다고 24일 밝혔다.

OCP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들이 효율적인 데이터센터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표준을 정립하는 기구다.

새 SSD는 6세대 V낸드 기반 제품으로, OCP의 NVMe CloudSSD 표준을



PM9A3 E1.S

/삼성전자

지원하고 데이터센터에서 요구하는 성능과 전력 효율, 보안 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특히 전력 효율이 크게 개선됐다.

연속쓰기 성능 기준 1와트당 283MB/s로 이전 세대보다 약 50% 낮다. 지난해 출하된 하드디스크를 이 제품으로 대체하면 한여름 서울시의 1달간 전력 사용량(지난해 8월 1412GWh)보다 많은 1년간 1.484GWh를 절약할 수 있는 수준이다.

성능도 개선됐다. 연속 쓰기 속도가 3000MB/s로 약 2배, 임의읽기 속도와 임의쓰기 속도도 40%, 150% 빨라졌다. 데이터암호화 뿐 아니라 안티롤백, 보안 부팅 등 보안 솔루션을 제공해 보안성도 높였다. 보안 부팅 기능도 추가했다.

/김재웅 기자 juk@

## 한화큐셀, 63MW급 수상 태양광 발전소 사업 수주

한양, 다스코와 공동이행 방식 시공

한화큐셀이 전남 고흥호 63MW(메가와트)급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수주했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12월 댐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인 합천댐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단독으로 착공한 데 이어 고흥호 사업도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고흥호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한화큐셀을 주축으로

(주)한양, (주)다스코가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공한다. 계약금액 1116억원 중 한화큐셀의 지분은 50%다. 공동이행 방식이란 같은 업종을 가진 2개 이상의 업체가 비율을 나눠 함께 시공하는 것이다.

한화큐셀은 나로호 발사지인 고흥군의 상징성을 살려 우주를 향해 도약하는 나로 우주센터를 표현하기 위해 달 형상으로 발전소를 시공할 계획이다. 내년 3분기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이 발전소는 약 9만명이 연간 가정용으로 사

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고흥군 전체 인구 6만 3922명이 사용하고도 남는 양이다.

한화큐셀은 수상 태양광 전용 모듈인 큐피크 듀오 포세이돈을 이 발전소에 설치한다. 친환경 자재로 생산된 큐피크 듀오 포세이돈은 썩습 85도, 상대습도 85%의 환경에서 3000시간 이상 노출 검사 등의 KS인증 기준보다 높은 내부 기준을 적용해 고온, 다습한 환경에 특화된 제품이다.

/김수지 기자

## LG에너지솔루션, ‘코나EV’ 리콜 입장 발표

# “원인규명 아직... 연관성 조사”

“소비자 안전 최우선... 리콜 협조  
재현 실험선 화재 발생하지 않아”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 고객사인 현대자동차의 코나EV(전기차) 리콜(시정조치) 관련 입장을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자발적 리콜 추가 실시 관련 원인 규명 등 조사가 완료되지는 않았다”라며 “하지만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토부 및 현대차와 함께 리콜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리콜 사유로 언급된 배터리 셀 내부 정렬 불량(음극탭 접합)의 경우 국토부의 발표대로 재현 실험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남경 현대차 전용 생산라인들의 양산 초기 문제로 이미 개선사항은 적용됐다”라며 “현대차

의 BMS 충전전력 오작동의 경우 당사가 제안한 급속충전 로직을 현대차에서 잘못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 화재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지 관련 기관과 협조해 추가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제조, 검사 등 모든 과정에서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지난해 10월 화재 원인으로 제시됐던 분리막 손상 관련 합동 조사단의 모사실험 결과 화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 등 3개 차종 2만 669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리콜로 수거된 불량 고전압 배터리 분해 정밀조사결과, 셀 내부 정렬 불량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해 화재 재현실험을 진행 중이다.

/김수지 기자

## LG전자, 올레드TV 年 200만대 이상 출고

글로벌 시장 비중 역대최대

LG 올레드 TV가 연간 200만대 출고를 넘어섰다.

24일 오피디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올레드 TV를 204만 7000여대 출하했다. 첫 200만대 돌파다.

2019년보다는 23.8%나 성장한 수치다. 지난해 4분기에만 86만 4000여대를 출하하며 분기 최대치도 경신했다.

LG전자는 올레드 TV 평균 판매단가(ASP)가 2000달러에 가까운 1971.9달러(한화 약 218만 8000원)였다며 그 의미가 크다고 봤다. 같은 기간 LCD TV(428달러)의 4.6배에 달한다.

ASP가 200만원 이상인 TV 중 출하량이 200만대를 넘긴 것은 LG 올레드 TV가 처음이다. 프리미엄 TV로 확고히 자리를 잡으면서도 꾸준히 출하량을 늘리면서 건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레드 TV 진영도 동반 성장했다. 지난해 365만 2000여대로 전년 대비



LG올레드 TV.

/LG전자

20% 이상 늘었다. 4분기에는 152만대를 넘어서면서 분기 기준 100만대 시대를 열었다.

글로벌 시장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9%를 돌파했다. 수량 기준으로도 2.2%나 됐다. 모두 역대 최대치다.

LG올레드 TV는 자발광 소자를 이용해 높은 화질을 내는 제품으로, 프리미엄 화질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올레드 TV 제조사도 19개, 올해 올레드 TV 판매도 늘어나면서 20개 이상이 올레드 TV 진영에 합류할 전망이다.

/김재웅 기자

## LG전자, 세계 20개 TV업체에 웹OS 공급

소프트웨어 분야로 TV 사업 확장

기 위함이다.

LG전자가 웹OS를 글로벌 TV에 탑재한다. TV 플랫폼 사업에도 새로 진출하게 됐다.

LG전자는 올해부터 전세계 20여개 TV 업체에 웹OS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미국 RCA와 중국 풍가 등이다.

LG전자는 이를 통해 하드웨어 중심이던 TV 사업을 소프트웨어 분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데이터 분석 업체 알폰소 인수에 이어 플랫폼 사업 진출 등으로 비즈니스를 다변화하

또 LG전자는 이를 통해 TV 사업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웹OS 생태계 확대도 수익창출뿐 아니라 콘텐츠 및 서비스 사업 고도화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전자는 웹OS의 앞선 경쟁력을 자신하고 있다. 그동안 TV 사업에서 플랫폼 사업을 본격화하는데에는 웹OS 덕분이라고 분석하며, 생태계 확대를 위해 공급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와 방송 서비스도 지속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재웅 기자